

거실내 가구사용 실태연구[@]

A Survey on Furniture Usage in Living room

이	명	옥*
Lee,	Myung	Ok
안	옥	희**
Ahn,	Ok	Hee

.....

Abstract

Field survey were made, and the numbers of samples are 294 houses(3-ways;66-95.7m², 99-128.7m² and more than 132m²)in Daegu.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pace evaluation of the living room is changed by the furniture occupancy rate and is different of the arrangement types.

2) The space evaluation of the living room is much affected by the type of furniture which lie in near wall arrangement in 66-95.7m², the proportion of the wall occupancy in 99-128.7m², the proportion of the space occupancy in more of 132m².

3) In the living room an appropriate quantity of furniture is classified into 3 types of the occupying proportion.

As the floor occupancy proportion supporting furniture is 13-22%, wall furniture is 10-17% and total furniture which combined both the supporting furniture and the wall furniture is 23-36%. Second, The proportion occupying the wall is 6-11% for the supporting furniture, 14-27% for the wall furniture, and 24-32% for the total furniture. Finally the proportion occupying the space is 5-9% for the supporting, 6-11% for the wall furniture, and 12-19% for the total furniture.

.....

* 정회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 정회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II)
A study on Evaluation of living room by Furniture Usage(II)

I. 序 論

오늘날 가구는 주거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구의 역할 또한 다양화 되어 주거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한 이전의 연구¹⁾와 國鴻²⁾의 연구에서는 가구가 거실공간 평가의 單獨요인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거실 가구에 대한 연구가 보통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거주자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연구되었고, 더욱이 가구와 인간의 관련성을 실측을 통해 밝힌 연구와 가구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한 경우가 더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편(part1)¹⁾의 거주자의 가구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에 이어 거실내 가구의 實測을 통한 實證의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이루어졌다. 또한 가구배치나 가구량이 공간 평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는 여러 연구결과³⁾-⁷⁾ 등을 볼때 본 연구는 거실가구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물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總合的인 분석을 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거실공간의 視環境 요소인 가구가 공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定量化하여 거실공간을 구성하는 이론적인 수법으로 공간 계획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주택내 거주성을 향상 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研究方法

2-1. 조사방법

본연구는 전편(part1)에서 설문조사한 家口로서 대구시에 위치한 20-29평(104) 30-39(100) 40평 이상(90)의 총 294家口의 아파트 거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대상 家口를 방문하여 직접 거실내 가구의 내용 파악과 거실크기(가로×세로×높이) 및 각각의 가구치수

(가로×폭×높이)를 실측하고 그의 가구양식, 가구형태, 가구색을 별도로 기입하고 가구배치는 스케치하여 실측조사표에 나타내는 형식을 하였으며 조사가 끝난후 거실 가구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1년 6월-8월(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2. 자료분석 및 처리

조사된 자료에서 거실크기 계산(바닥면적, 벽면적, 室容의)과 가구치수 계산(가구의 바닥점유율,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은 dBASE III⁺로 처리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전편의 설문조사와 實測을 병행한 data를 사용해서 빈도, 평균, X²-검증, ANOVA(사후검증 : scheffe-test, Correlation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論議

3-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의 거실면적을 평수별로 평균을 (표1)에 나타내었고, 또한 조사대상 평수와 거실면적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상관계수 $r=0.9286(p<.001)$ 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거실면적별 분류 대신 평수의 분류 방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거실면적을 제시하는 것보다 평수의 개념이 누구에게나 더욱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평수별로 분류된 20-29평(20평형), 30-39평(30평형), 40평 이상(40평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종류를 인체를 支持하는 소파와 그것에 부속된 테이블과 사이드 테이블을 지지용 가구로 명칭하고, 수납 및 칸막이로 된 것과 악기, 전축 등을 포함해서 벽면에 접해 배치된 가구를 벽면가구로 칭하여 2종류로 하여 가구를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연구하였다. 주로 가구의

배치와 량, 그리고 디자인적 諸要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가구의 량은 점유율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표1. 조사 대상의 거실면적(단위 m²)

20평형	30평형	40평형	진 체
11.3 (3.4평)	16.0 (4.8평)	18.7 (5.6평)	15.2 (4.5평)

3-2. 家具配置

1) 가구배치에 따른 특성

똑같은 공간이라도 가구의 종류와 배치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며 그 분위기는 거주자의 개성과 취미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도 가구배치의 차이는 생길 것이다. 따라서 평수별 가구배치에 대한 고찰은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가구를 표2와 같이 지지용가구는 5종류로 하고 그 배치는 室중앙에 배치된 core형과 벽면에 접해서 배치된 벽면형, 양자의 중간에 속한 center형의 3종류로 분류했다. 그리고 벽면가구形은 크게 나누어 I형, L형, 대면형, 분산형의 4종류로 하였다.

표2. 가구배치 유형에 따른 평수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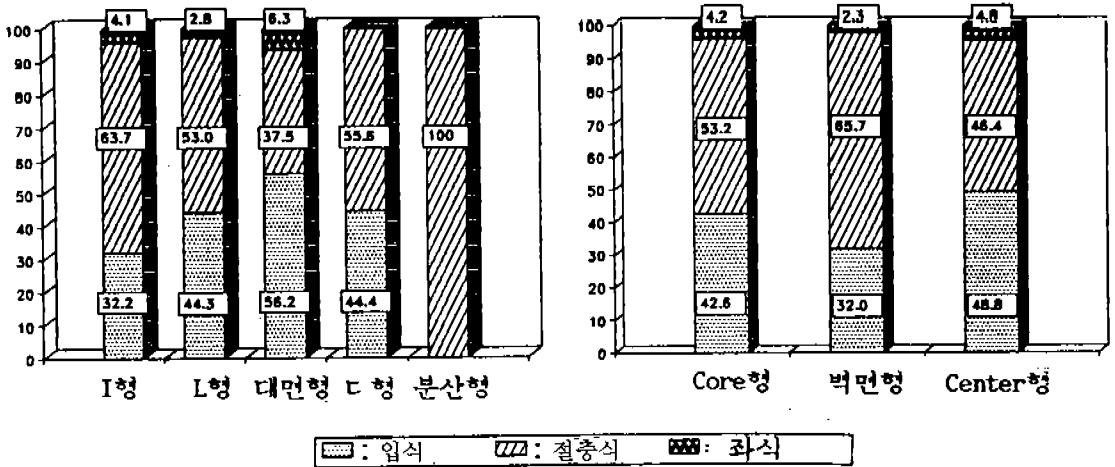
변 인	가구배치형 (빈도)	평 균	F값 scheffé-test
지 지 용	I형(124)	1.81	4.71**
	L형(115)	2.23	
	대면형(16)	1.93	
	ㄷ형(9)	2.11	
가 배 치 구 형 태	core형(47)	2.38	6.06**
	벽면형(134)	1.92	
	center형(84)	1.96	
벽 면 가 구	I형(157)	1.85	1.88
	L형(46)	2.04	
	대면형(51)	2.11	
	분산형(39)	2.05	

- 유의수준 ** < .01
- A, B : 다른 문자는 유의차가 있음

여기서 평수를 분류하여 20-29평을 1점, 30-39평은 2점, 40평 이상은 3점을 주어 가구배치에 따른 평수와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표2), 지지용 가구는 ㄷ형이나 배치에 있어 평수가 클수록 L자형, ㄷ자형, 대면형, I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ore형은 큰 평수일수록 많고 벽면형은 평수가 작을수록 많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수가 작은 경우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Space를 덜 차지하는 벽면 밀착식의 벽면배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벽면가구의 形은 평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家具配置와起居樣式的 관계

현재 우리나라 주택에서는 실제 生活樣式的 立 式化보다 가구의 입식화가 선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공동주택의 거실인 경우 대부분이 입식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입식가구의 가구배치와 기거양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증한 결과(그림1), 지지용 가구형과 배치형태에 따라서 기거양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볼때 가구중 인체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지용 가구와 기거 양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절충식의 기거양식이 많다는 것은 가구가 입식형태지만 바닥에 앉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융접 Set를 장식 혹은 과시적 효과를 위해 두는 경우이거나, 좌식 생활에 익숙하여 의자에 앉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로 지지용 가구의 I형은 거실 면적이 좁을 경우에 많은데 입식가구를 들여놓아 그로 인해 공간 활용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가구의 선택이 실제 생활양식의 변화보다 선행된다는 조성희⁸⁾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안호협⁹⁾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의 입식화 경향은 뚜렷하나 이를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住空間의 절대면적의 협소 내지는 부족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주공간의 협소화에 덧붙혀 너무 빠른 立 式化 가구도입이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2=15.3, df=10, p<.001$

$X^2=154.5, df=6, P<.001$

그림 1. 지지용 가구형 및 배치형태와 기거양식의 관련성

3) 家具 配置와 평균 SD得點에 따른 分析

각 평수별로 가구배치에 따라 공간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D특점의 평균치 Profile를 그려 검토하였다(그림 2). 그림2에서는 전편¹⁾에서 서술한 요인구조에서 나타난 요인순위 즉 활동성(편리한, 자유스런, 단란한, 활동적인), 평가성(계획적인, 완전한, 쾌적한), 호화성(호화스런, 귀족적인), 풍부성(매력있는, 부드러운), 개방성요인(넓은, 높은)의 순으로 평가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지지용 가구형에서는 20평형은 전반적으로 가구형에 따른 평가의 차가 크며 「호화스런」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띄어 ㄷ형의 평가가 가장 높고 대면형의 평가가 가장 낮다. 한편 40평형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호화스런」에 있어서 대면형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또한 지지용가구가 배치된 형태를 보면 30평형은 벽면형이 대체로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40평형에서 활동성요인에는 벽면형, 평가성요인에는 center형이 높게 평가되었다. 벽면가구에서는 분산형의 의미는 작은 가구가 거실에 맞게 여러곳에 배치함을 뜻하고, 이는 활동성요인의 평가와 밀접

한 영향을 준다. 20평형은 평가성요인에 분산형의 평가가 비교적 높고 30평형은 I형, 분산형이 호화성요인 평가가 낮으며 40평형은 활동성, 평가성요인에 대면형 평가가 낮으며 풍부성요인에 분산형의 평가가 낮았다.

평균치 profile을 통해 전반적으로 지지용 가구배치 형태나 벽면 가구형에 비해 지지용 가구형에 따른 평가 범위가 큰편이며 가구배치에 따라 평수별로 공간평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의 선택과 배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이 필요하다.

3-3. 家具屋

1) 가구량에 따른 특성

현재 각 가정의 거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한국적인 생활양식은 좌식생활을 하면서 생활이나 그 사용빈도를 검토하지 않은채 입식가구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많은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거실내 가구점유율은 다음과 같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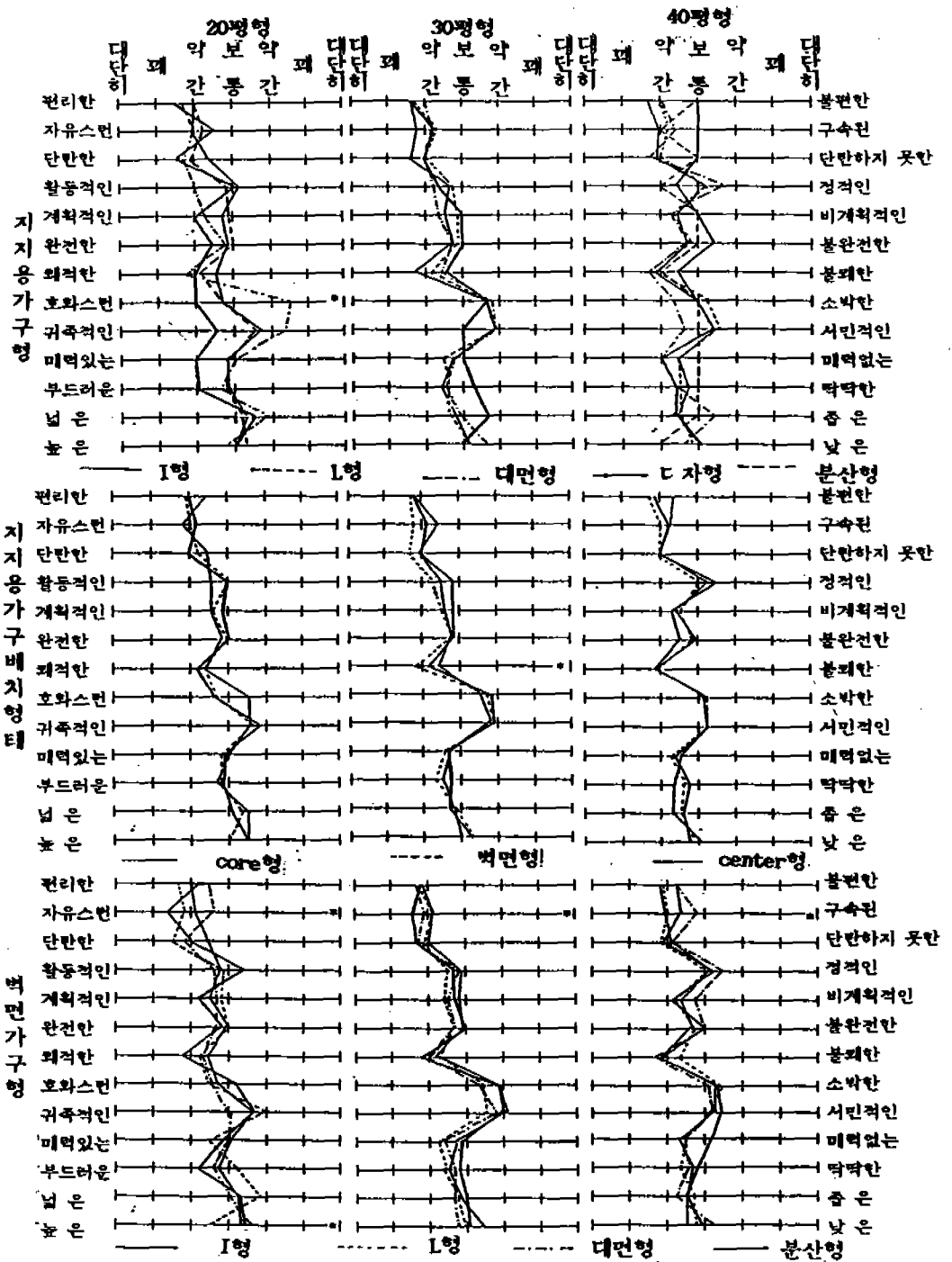


그림2 가구배치의 평균치 profile

표 3. 거실가구의 평균 점유율 (단위 %)

평수	바닥점유율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		
	지지	벽면	전체	지지	벽면	전체	지지	벽면	전체
전체	16.1	13.5	29.6	9.4	18.7	28.1	6.1	7.9	14.0
20평형	13.8	13.2	27.0	7.6	15.8	23.4	5.0	6.8	11.8
30평형	15.5	14.8	30.3	9.0	20.1	29.1	6.0	9.3	15.3
40평형	19.3	12.5	31.8	11.9	20.6	32.4	7.6	7.9	15.4

표3에서 가구의 바닥점유율이 27.0-31.8%로 나타났으며 이경희 외(1978)의 21.5%¹⁰⁾, 공미혜(1980)의 27%¹¹⁾, 1983년의 강성미 27.9%¹²⁾와 비교해 볼때 가구의 바닥점유율이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최대한 거실에서는 가구의 바닥점유율이 33.3%¹³⁾라는 의견이 있고, 이는 본 연구의 40평형의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전체가구의 벽면점유율에서는 평수별로 23.4-32.4%이고 공간점유율은 11.8-15.4%였다. 이는 田中¹⁴⁾의 조사에서 나타난 벽면점유율 16-26%, 공간점유율 14-15.4%와 비교해 볼때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간점유율은 비슷한 범위이나 벽면점유율은 본 연구결과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한국의 경우가 일본보다 키가 큰 가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점유율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바닥점유율로만 나타내었지만 최근 가구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며 특히 공간점유율이 높은 건축계 가구들의 증가폭이 커진다¹⁵⁾는 사실을 볼때 벽면, 공간점유율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3에서 평수가 클수록 가구의 평균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家具量과起居樣式的特性

기거양식은 지지용가구와 관련이 많으므로 지지용가구의 가구점유율을 구분하여 바닥점유율을 0-11%미만을 1점, 11-15%미만을 2점, 15-19%미만은 3점, 19-23%미만은 4점, 23%이상은 5점

으로 하고, 벽면점유율은 0-7%미만을 1점, 7-10%는 2점, 10-13%는 3점, 13%이상은 4점이며, 공간점유율은 0-3%미만은 1점, 3-6%는 2점, 6-9%는 3점, 9%이상을 4점으로 주고, 지지용 가구의 점유율과 기거양식과 차이검증을 한 결과(표 4), 지지용가구의 바닥점유율은 20평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좌식에 비해 절충식이나 입식의 경우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 입식형태의 응접셋트가 면적을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입식가구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바닥점유율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식가구에 대한 선택, 배치, 구입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4. 기거양식에 따른 각평수별 가구량의 차이

평수	변인	구분 (N)	지지용가구의 가구량		
			바닥	벽면	공간
20-29평	기거양식	입식(35)	3.02 A	2.60 A	2.71 A
		절충식(46)	2.82 A	2.47 A	2.69 A
		좌식(23)	1.56 B	1.43 B	1.52 B
	F값	11.1***	11.5***	17.4***	
30-39평	기거양식	입식(46)	2.65	2.43 A	2.80 A
		절충식(47)	2.76	2.36 A	2.59 A
		좌식(7)	1.42	1.00 B	1.28 B
	F값	2.55	5.36**	7.90***	

@ 사후검증 : scheffe-test

유의수준 *** p<.001

A, B : 다른 문자는 유의차가 있음

또한 벽면점유율에서는 20평형과 30평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입식일 경우 벽면 점유율이 가장 큰것으로 밝혀졌고, 공간점유율은 모든 평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벽면점유율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구량 중 지지용 가구의 공간점유율이 평수와 관계없이 기거양식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실가구 형태가 없었고 오늘날 대

부분 西區人 생활이나 체구에 맞게 설계된 입식형 태의 거실가구를 도입하여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식가구(예를들어 응접세트 및 테이블 의자등)는 위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실에서 가구점유율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며 공간활용을 다소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양식의 혼재와 함께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생활자세에 친근한 가구의 조건으로 개량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3)空間, 家具配置, 家具量과의 관계

공간, 가구배치, 가구량(가구점유율)이 서로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와 서로간의 유의차를 조사하였다(표5). 여기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면 지지용가구의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 바닥점유율과는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벽면점유율과 벽면가구의 공간점유율은 벽면가구의 벽면점유율과 상관이 높았고, 지지용 가구의 공간점유율과 벽면점유율, 전체가구의 공간점유율과 벽면점유율은 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가구의 바닥점유율은 지지용가구가 가장 관련성이 많고, 가구의 벽면점유율은 벽면과 공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가구 유형으로는 벽면가구와 비교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닥은 지지용 가구, 벽면은 벽면가구와 비교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간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그들의 체적이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구는 공간과 깊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공간, 가구배치, 가구량의 상관관계

	평수	공간점유율(체적)	벽면점유율(벽면)	벽면점유율(지지용)	벽면점유율(전체)	벽면점유율(벽면)	바닥점유율(지지용)	바닥점유율(전체)	바닥점유율(벽면)	가구배치(지지용)	가구배치(벽면)	가구배치(전체)	공기(지지용)
평수		/**	/	/*	/*	/	/	/**	/**	/**	/**	/*	/**
가구 배치	형(지지용)		/**	/	/**	/	○**	○	/**	○	/	/*	/*
	배치(지지용)			/**	○**	/*	/**	/**	/	○**	/	/*	/*
	형(벽면형)				/	/**	/	/**	/**	/	/**	*	/*
가	바닥점유율(지지용)						⊙**	□**	/	○**	□**	/	○**
	벽면						□**	/	⊙**	□**	/	⊙**	□**
	전체						⊙**	/**	□**	⊙**	□**	⊙**	⊙**
구	벽면점유율(지지용)								/	○**	□**	/	○**
	벽면									□**	/	□**	⊙**
	전체									/**	⊙**	□**	□**
량	공간점유율(지지용)												□**
	벽면												⊙**
	전체												□**

바닥점유율(지지용, 벽면) = 가구바닥면적(지지용, 벽면) / 바닥면적(%)

벽면점유율(지지용, 벽면) = 가구벽면적(지지용, 벽면) / 벽면적(%)

공간점유율(지지용, 벽면) = 가구체적(지지용, 벽면) / 실용적(%)

* p<.01 ** p<.001

□ r ≥ 0.8

⊙ 0.8 > r ≥ 0.6

○ 0.6 > r ≥ 0.4

/ 0.4 > r

3-4. 家具 諸要因과 空間滿足度

거실 사용에 따라 거실공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평수와 가구제요소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표6).

표6에 의하면 각 항목(독립변인)은 실측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평수별로 거실공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편상관계수에서 얻어진 값으로 순위를 정해보면 20평은 벽면 가구형>전체 가구의 벽면 점유율>지지용가구의 배치형태>지지용가구의 색상>지지용가구의 공간점유율이고, 30평형은 벽면가구의 벽면 점유율>벽면가구 가구양식>벽면가구형>벽면가구의 바닥점유율>지지용가구형>벽면가구의 양식>지지용가구의 배치형태로 나타났고 상위 5위까지를 나타낸 항목들이 각 평수

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20평은 양보다는 배치, 30평형과 40평형에서는 가구량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위를 보면 20평형은 벽면가구의 배치형이며, 30평형에서는 벽면가구의 벽면점유율이며, 40평형에서는 벽면가구의 공간점유율이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주로 벽면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벽면가구의 높이가 높으며, 벽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시환경을 경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입주할때 이미 큰 벽면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불만을 호소하는 거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때 벽면가구가 공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따라서 키가 큰 벽면가구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표6. 거실 공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

항 목		편 상 관 계 수						
		20 평 형		30 평 형		40 평 형		
가 구 제 료	지지용	.036		-.002		.039		
	벽 면	.064		-.015		.089		
가 구 양 식	지지용	-.031		.048		.038	△	
	벽 면	.067		.234	■	.169		
가 구 형	지지용	-.030		-.078	◎	-.123	◆	
	벽 면	-.221	◆	-.138	◆	-.032		
가 구 배 치	지지용	-.124	◆	.039		-.115	◎	
	가 구 색	지지용	.122	△	-.073		-.008	
	벽 면	.036		-.043		.080		
가	바 닷 점유율	지지용	-.030		-.058		.032	
		벽 면	.069		-.092	△	-.023	
		전 체	-.049		-.065		.016	
구	벽 면 점유율	지지용	.029		-.002		.035	
		벽 면	.074		.252	◆	.144	
		전 체	-.143	■	-.058		.015	
량	공 간 점유율	지지용	.103	◎	.069		-.079	
		벽 면	.065		-.059		-.254	◆
		전 체	.021		.042		.126	■

편상관계수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3-5. 적정 가구량에 관한 고찰

거실공간에 적정한 가구량을 알아보기 위해 가구점유율에 따른 거실공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빈도를 중심으로 분포를 나타내었다(그림3).

가구량에서 평수별 적정량을 먼저 고찰해 본 결과에서 평수별로 공간 만족도의 빈도가 적어 분포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평수를 대상으로 적정 가구량을 조사하였고, 적정 가구량의 산출기준은 공간을 만족하는 각각의 가구점유율의 빈도를 구한 후 그 분포를 나타내고 거기서 빈도 50%이내에 속하는 분포를 적정 가구량으로 하였다.

그 결과 지지용 가구의 바닥점유율에서는 13-22%로 나타났고, 벽면가구의 바닥점유율은 10-17%, 전체가구의 바닥점유율은 23-36%로 가구

가 너무 적어도 좋지 않고 너무 많아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용 가구의 벽면 점유율은 6-11%이고, 벽면가구의 벽면 점유율은 14-27%이며, 전체가구의 적정 벽면점유율은 24-32%임을 알 수 있다. 공간점유율에서 지지용 가구의 적정량은 5-9%이고, 벽면가구는 6-11%, 전체가구는 12-19%로 나타났다.

위에서 서술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때 가구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 할때 공간의 넓이라는 방해요인 혹은 制御作用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대로 행동에 옮기기에 불편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평수별로 적정가구 사용규모는 달라지리라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자료에 입각하여 평수별 적정량을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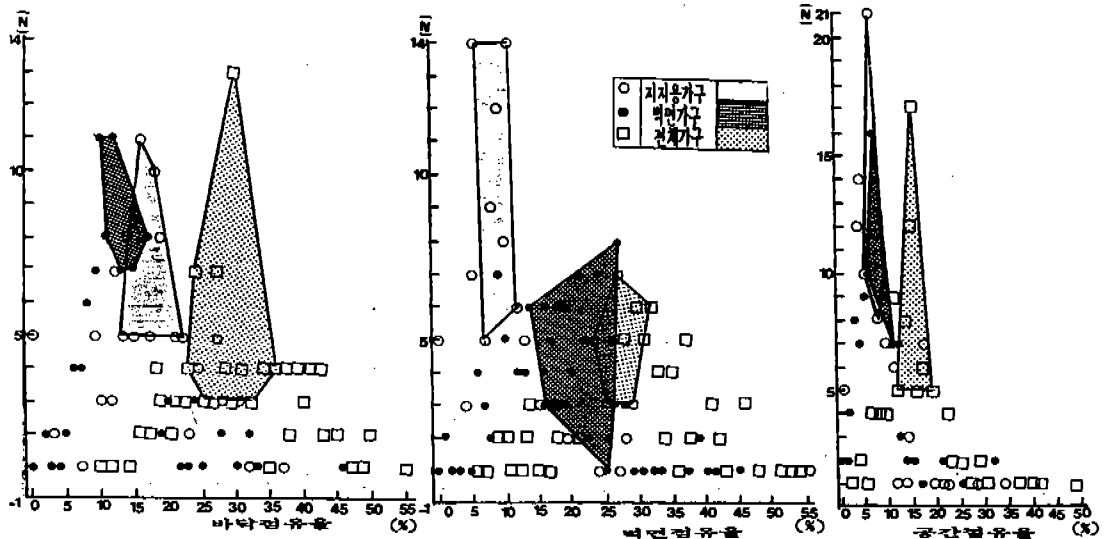


그림3. 적정 가구량

IV. 結 論

室內裝備의 요인 중 單獨要因으로 작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평수별로 분류한 아파트 거실을 중심으로 가구를 실측하여 가구배치 및 가구량과 가구 사용 의식과 함께 그에 대한 공간평가를 定量化하므로 쾌적한 거실공간 구성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1)실측을 통해 얻어진 가구배치 형태에서 작은 평수일수록 여유 공간확보가 많이 되는 가구배치형인 I형, 벽면에 밀착된 벽면형가구가 사용되며 평수가 클수록 ㄷ형, core형이 많았다. 또한 기거양식에 따라 가구배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2)가구점유율은 평수가 클수록 증가하며 기거양식이 입식일수록 점유율은 높기 때문에 立式家具의 선택, 배치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구점유율과 공간평가에서 평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벽면가구가 공간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을 알 수 있다. (3)居室空間 評價에 영향을 주는 가장 우선순위는 20평형은 벽면가구 배치형, 30평형은 벽면가구의 벽면점유율, 40평형은 벽면가구의 공간점유율로 나타나 평수별 차이를 보여 거실면적을 고려한 가구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4)가구적정량은 바닥점유율에서 지지용가구는 13-22%, 벽면가구는 10-17%, 전체가구에서는 23-36%로 나타났고 벽면점유율의 경우 지지용가구 6-11%, 벽면가구 14-27%, 전체가구 24-32%이며, 공간점유율에서는 지지용가구는 5-9%, 벽면가구 6-11%, 전체가구는 12-19%로 산출되었다.

평수별 적정 가구배치, 가구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성 높은 실험방법과 넓은 범위의 자료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空間評價 方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명옥, 안옥희,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I) -가구사용 의식 및 거주자 평가-”, 한국주거학회지, Vol. 2, No.2, pp1-12, 1991.
- 2) 國鴻道子, “室內視環境要素の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 奈良女子大學 學位論文, 1985.
- 3) Wools, R.M, “The Assesment of Room Friendliness,” Architectural Psychology: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Dalandhui, RIBA Pub. pp. 48-55, 1970.
- 4) Holahan c.j.& s.saegert, “Behavioral and Attitudinal Effect of Large-Scale Variation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pp454-462, 1973.
- 5) Imamoglu, V, “The Effect of Furniture Density o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Spaciousness and Estimation of Size of Room,” in Küller, R.(Ed.), Architectural Psychology:Proceeding of Lund Conference, Dowden, Hutchinson and Ross, pp.341-352, 1973.
- 6) 小島雅子, “觀察位置, 家具の位置との関わりが室内雰囲気におよぼす影響”, 日本家政學研究, vol.31, NO.1, pp95~103, 1984.
- 7) 國鴻道子, 梁瀬度子, “室內構成材の雰囲気への影響に関する研究の(2) -室内裝備の要因について-人間工學, Vol. 21, NO. 1, pp. 47-53, 1985.
- 8)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9) 안호협, “아파트 가구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10) 이경희, 이주영, 정재영, “가구이용면에서 본 주공간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15, pp89-90, 1978.

- 11) 공미혜, “주거유형에 따른 거실의 구성에 관한 고찰”,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2) 강성미, “아파트 거실제실의 가구배치에 대한 연구”, 동아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13) E.H.Klauer, Housing design, Reinhold Pub-
.corp., New York, p28, 1954.
- 14) 田中宏子, “住宅居間における装置的要因としての家具が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 奈良女子大學學位論文, pp.41-46, 1990.
- 15) 조원덕, “가구의 소유에 따른 주공간의 재구성”, 한국주거학회지 Vol. 2. No. p67, 1991.

